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예수교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0년 복음잔치,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지금,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세운 20개 교회 학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열리는 복음잔치인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이미 강습회와 영성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엡 3:16). 특히 이번 여름에는 모든 교회학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계 22:20)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 되어 복음을 배우며 깨닫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거듭나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이 십자가를 전하는 성령의 도구를 거둔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사랑 안에서 행하라 (로마서 12:9~21)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에 기준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 결정 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 즉 새로운 것이 된 자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여 주었다(롬 12:1~3).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롬 5:8, 12:9). 여기에 새로운 삶의 기초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반사일 뿐이다(마 23:2~7, 12~13).

사랑은 죄를 감할 수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일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우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 피조물들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자기 양심과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같이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전 16:14). 이는 영원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옷을 입어야 한다(골 13:14). 세상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격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골 2:6~8). 사도 바울은 또 같은 내용을 사랑으로 표현한다(골 3:12~14).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권고하면서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권고한다(엡 5:1~2).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를 유기체로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준다(요 15:4~7, 9~10).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가 돌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피가 돌아감으로써 각 지체들은 단번에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 여기에 인격이 있으면 그것은 압적인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도 몸을 이룬 것이다. 다른 지체의 아픔과 짐과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골 12:10~13).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말씀은 곧 사랑 안에서 산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삶의 외적인 표현이다. 바울은 순수한 사랑을 권고한다(롬 12:14~18). 이는 십자가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나누어야 한다(눅 23:34).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행하는 삶이다(고전 12~13장).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삶, 주는 삶, 잃어버리는 삶, 죽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음으로 그 사실에 합당한 자기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롬 12:19~21). 아멘.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 22:20)

부서	일시	장소
청년1부	7월 16일(금)~17일(토)	충현기도원
청년2부	7월 17일(토)	제1교육관 407호
고령부	7월 26일(일)~28일(수)	충현기도원
영아부	7월 27일(월)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7월 27일(월)	제1교육관 201호
유지부	7월 27일(월)	제1교육관 207호
초등1부	7월 27일(월)	제1교육관 407호
초등2부	7월 27일(월)	제1교육관 507호
중등부	7월 28일(수)~30일(금)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3일(금)~14일(토)	충현기도원
사망부	8월 14일(토)	복지관 지어층
예배다스부	8월 28일(토) *성인만	제2교육관 1층

THE MINISTRY OF A MIRACLE

⁽⁶⁾Therefore Jesus, lifting up His eyes and seeing that a large crowd was coming to Him, said to Philip, "Where are we to buy bread, so that these may eat?" ⁽⁶⁾This He was saying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as intending to do. ... ⁽¹³⁾So they gathered them up,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were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¹⁴⁾Therefore when the people saw the sign which He had performed, they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ohn 6:5~14)

Many people followed after Jesus to see His miracles. They were especially moved by His power to save life. "A large crowd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signs which He was performing on those who were sick" (Jn. 6:2). These people had a strong desire to be near Him. Their enthusiasm was usually misdirected, so Jesus chose important times to be away from the crowds. "Then Jesus went up on the mountain, and there He sat down with His disciples" (Jn. 6:3). He looked down upon the multitude and asked Philip. "Where are we to buy bread, so that these may eat?" (Jn. 6:5) Philip was presented with a real problem. Jesus discussed this problem with His disciples, and His disciples analyzed the situation and suggested various answers. Their answers were interesting and perhaps appropriate, but not perfect. None of them came up with the right answer, so Jesus performed His ministry of a miracle.

When facing problems you always need to remember Jesus' power. Whether you like it or not, problems are a part of living in a sinful world. Everyone has to deal with problems because problems come to everyone. Whenever a problem comes up, we want to straighten it out. Often times the solution to a problem is more than we possess. Jesus saw the problem with the crowd first, and He let Philip in on the problem to prove to him His power. Jesus knew what He would do before Philip even answered. "This He was saying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as intending to do" (Jn. 6:6). Nothing takes God by surprise! Philip immediately focused on the problem, and did not focus in on Jesus' power. He and the other disciples were living with Jesus, watching His power all the time, but they didn't look to Him. They started planning and coming up with solutions based on the problem, not Jesus. They should have focused on the power of Jesus Christ. Jesus loves you very, very much. You can relax becaus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Lk. 1:37). Just remember. "The things that are impossible with people are possible with God" (Lk. 18:27). Do you believe it? Do you really believe it? The next time you face a big problem, stop taking it so seriously, and stop making things your responsibility. Literally stop focusing on the problem because you will never get a perfect answer that way. All of Jesus' disciples could not give Him a satisfactory answer.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at his wits end when he said to Jesus. "There is a lad here who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but what are these for so

many people?" (Jn. 6:9)

When you give your problems to Jesus, little becomes much. Philip answered Jesus. "Two hundred denarii worth of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for everyone to receive a little" (Jn. 6:7). The amount of money Philip mentioned was about eight months' wages for the average worker. Jesus decided to use the little boy's lunch that Andrew had pointed out of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Jesus then took the loaves, and having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likewise also of the fish as much as they wanted. When they were filled,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leftover fragments so that nothing will be lost.' So they gathered them up,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were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Jn. 6:11~13). God takes little but gives abundant blessings. Think of the widow with one son who lived on one last meal for three and a half years. Think of David who threw a little stone to kill a giant. Think of Moses' little stick that divided the Red Sea. Think of Gideon and his 300 men who overcame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Focus on Jesus. When you give what you have to Jesus He multiplies it.

When you are willing to obey, then you are ready to be blessed. Jesus told His disciples. "Have the people sit down" (Jn. 6:10). The disciples obeyed.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about five thousand" (Jn. 6:10). The people humbly sat and waited, knowing full well that there was no food but a little boy's lunch. They obediently took their places and were ready to be fed from the lunch of a little child. How different from our worshipping big names and titles! Our humble Savior gave thanks for the little food, and orderly distributed it through His disciples. Nothing is disorganized about Jesus. He will bring order to your life. He will fix all your problems if you give them to Him.

My dear friends, there are hungry souls all about us that need the living bread that Jesus offers. Jesus wants to use what you have to feed His children. When problems come to your way, run to Jesus and pray. "Ah Lord God! Behold, You hav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by Your great power and by Your outstretched arm!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You" (Jer. 32:17). Jesus is the name to call on when troubles come. Don't let Satan get the best of you by diverting your attention to the problem or what you think is best. God does not think like we do. Trust God and all will always be well. Amen. 

기적의 사역

“⁹³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⁹⁴“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 ⁹⁵“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⁹⁶“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5~14)



김석관 목사

만은 사람이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요 6:2).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열정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때마다 무리로부터 물러가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요 6:3).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 그 때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흥미로웠고 상황에 적절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옳은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가워하던 하지 않은 죄악 된 세상에서의 문제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 해결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군중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빌립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요 6:6).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그 문제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그들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아닌, 문제에 근거해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다음 번에 여러분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결코 완벽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 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9).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아주 작은 것도 풍성해집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7). 빌립이 말한 이백 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의 8개월 치 월급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말한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였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요 6:11~13). 하나님은 작은 것을 취하여서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외아들과 살고 있던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드림으로 삼 년 반 동안 은혼을 입었습니다. 작은 물뿔들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를 써 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요 6:10).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요 6:10).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겸손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로 죽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름과 제목을 내건 우리의 예배와 열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겸손하신 우리 구주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에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차례대로 나눠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질서한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면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아설 때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하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니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까”(렐 32:1). 어려운 문제를 생길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관심을 당면한 문제로 돌리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M**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13)

■ 시험을 넘어 승리의 확신을 얻기까지

청지기훈련이 정해진 때부터 저어젠 시험의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에 때에 신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훈련에 참석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잡한 금요일 퇴근 시간의 강남대로를 평상시의 3배 이상 시간을 소요하며 교회까지 도착하여 어렵게 주차하기까지, 출근하러 불평의 말을 잠재우기 위해 가슴 졸여야 하는 상황을 포기하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출장 다녀와 피곤한 남편 꼭 쉬라 하고 나만 혼자 참석해야 온전하게 은혜 받고 올 수 있을까? 잤다 와서 남편한테 잘 해주면 되지 뭐~ 그냥 편안하게 내 신앙만 지키자!’라고. 그러나 그 속삭임은 한 연흔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순간 내가 통과해야 할 시험임을 성령께서 곧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청지기훈련 당일, 피곤함은 이유로 1시간만 참석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시험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한 청지기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저에게는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값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람함으로, 시험 당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할 길을 주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앉은 남편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록 1시간만의 반복 훈련이었지만 오늘의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나 혼자의 편리한 이기적 신앙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같은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한국 문을 향해 같이 가는 이 인생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구원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혜란(집사, 3교구)

■ 예수님 안에서만

죄악의 비참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와 사탄과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은총이 있을듯 알기에 열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제게 오늘 말씀은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내 안의 죄를 사할하는 마음과 세상의 죄를 이기며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한 시험 앞에서 주님을 알려 줌을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의 무능력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을 믿음으로, 저와 주변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 단순히 일에 발린 죽은 기도가 아닌 간절함 기도로 열드려야 함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를 준비가 되어 있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유종민(청년1부)

■ 내가 죄인이구나

깊은 회개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늘 교회에 오면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웠고 저 혼자 개인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예배의

시작과 마침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으며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 우리의 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사탄다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밑으로 내려가는 기도이기에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은 이 좁은 길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며 또한 나를 믿고 자만하게 되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 보려 합니다. 김도홍(대학부)

■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

2008년 2월 눈물로 세례를 받던 날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청지기훈련에 위임독서님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세례 때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기도는 첫째는 남편의 사업 성공이며 둘째는 자식이 반듯하고 셋째는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듯 협상 반, 매달림 반으로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였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오직 축복을 향한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확실한 기도를 드리지와 다짐하며 3월 16일부터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같은 기도문을 백번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맞이한 청지기훈련이었기에 주님은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2010년 상반기는 유독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많았는데 주님은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순간은 황폐한 땅에서 수확을 얻는 기쁨이요, 마른 뼈에 생기가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김영선(권장, 13교구)

■ 죄와 허물밖에 없는 자

평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대배반만 아니라 여러 예배와 집회의 마침 기도로 자주 암송하고 있어서 잘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암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주님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있는 집, 마른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주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동안 저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내, 신앙, 신분이 나를 죄에 빠지게 끌고 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나의 무지함과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부인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우주(청년2부)

☞ 양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특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참석하려고 시합을 내서 일찍 집에서 나왔고 주의 은혜로 예배 15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험이 많는데 그 어떤 특별한 어려움, 일만이 시험인 줄 알고 사소한 일을 시험이라 생각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내 온 수많은 날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서도 시험인 줄 모르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공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 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심을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러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 주었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날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홍호(성도, 새가톨릭목부)

☞ 기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

창치기후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참석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하었다.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라는 세상적인 이유가 발목을 붙잡았지만 주님게서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고 연합찬양대가 되어 찬양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5분 전, 많은 성도가 일찍 나와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 아까 손을 잡고 온 아이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많은 집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나왔음을 감사했다. 연합찬양대로 찬양을 드릴 때 늦게 참석하여 연습도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어눌한 입술을 열어주셨고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평소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마치 주님을 의듯 형식적으로 외웠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고 회개하였다.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인해 허무작대는 우리를 유희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영훈(고통부)

☞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크신 은총

우리 교회는 창치기후련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기도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대화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준비해 주셨건만 나는 주의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말씀은 큰 파도처럼 밀려와 게으르고 내태한 나의 심령을 다시 한 번 흔들어 주었다. 세상살이로 인해 낙심할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라스러운 일이 내게 있을 때에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창치가 되어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정지호(집사, 이바다부)

☞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설령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참 기쁜 말입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생각난 대로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단어. 언제부턴가 저에게 주님을 향한 설령이 배워 버린 사람이나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치기후련도 설령없이 저에게는 반복적인 일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 좀 앞선 저에게 소중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까. 늘 귀한 분에게 그 분을 기다리며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때 속에 우리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이런 마

음으로 날 기다리시겠구나.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내 마음처럼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날 기다리시겠구나'라는 생각에 굳어버린 제 마음은 어느새 따뜻한 눈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님은 은혜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으로 창치기후련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석했던 예배가 어느덧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의 풍성한 속에서도 주님은 제게 뒤집지 않은 전방처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하였고 이 작은 짐마저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라는 듯 갈급함에 지쳐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예비하신 은혜의 때까지 제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치기후련을 통해 나의 작은 짐마저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설령을 가득 품고 달려간 창치기후련.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저의 뒤집어지지 않은 모습을 의심할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인하지 못한 나의 모습,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어느새 그것들이 나 스스로 만족인양 묘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도 어리석고도 날 놓지 않으시고 설령으로 사십 주 사십 아를 달려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시리도록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감동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내 뜻대로 헤엄치려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내 작은 지혜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 시험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였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생각만 넘쳐난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분별 못하고 시험과 울무에 빠져 버리는 어리석은 저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나의 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승근(성도, 1교구)

☞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치기후련을 교회의 행사로 생각하며 분주하게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의 양식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들 깨닫게 되면서부터 저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창치기후련 참석을 위해서도 기도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하 말로서 관하였는데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참석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때 세 번의 부인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지혜와 능력과 믿고 나아갈 때는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시험이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양귀 가실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사심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집사, 7교구)

☞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으면서 뜻밖의 일도 생기고, 뜻하지 않게 바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원컨대 예수님을 내가 혹시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창치기후련에 발길을 옮기게 하셨던 천왕 사사다. 다시금 십자가 사랑이 느껴져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원래 나는 종이로 거저다. 하지만 죄인인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창치기 나를 사랑하시면서 죽기까지 힘들어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간순간, 정말 매순간 승리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믿고 자랐던 내 믿음도 새삼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심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그냥 주께 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유미나(권할, 22교구)

메시아의 죽음 65

베드로의 자신만만함

에 대해서 마태도 기록하였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다.

3년 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가셨다(마 1:16).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순종했다(눅 5:5).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당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5:8)라는 진심어린 고백을 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1:17).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마 1:18 ; 눅 5:11).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 가족 등 삶의 기반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제자였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마 16:15~16 ; 막 8:29).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지식과 열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심이었지만 결

감함으로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 이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라하지 않겠나이다"(마 14:29)라고 말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고백

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베드로의 초점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을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다(마 8:30~32).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8:33)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마 16:23)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넘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 아니 우리에게 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충성심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일이 아닌가? 인간을 존경하며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바로 오랜 신앙의 경험과 지식을 가졌기에 자신은 관음할 거라는 자신만만(自信滿滿),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신앙연륜이 우리의 '의식'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라도, 더 심각한 '무의식'은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가 절실하다(고후 5:17). "나는 아니지요"(마 14:19)라고 말하지 말자. 바로 나 자신이 문제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자신만만해진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관계를 맺게 하소서." 아멘.

* 매주 필요새책기도회(새책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7. 7)

청년의 고민

(시편 119:9~11)

시편 119편은 성경 중 가장 많은 176절을 담고 있으며, 히브리어의 알파벳(자음 22개)에 따라 22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특히 각 단락의 결론은 항상 '말씀'이며, '주의 말씀'(thy word)이라는 단어가 43회나 반복될 정도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119편의 두 번째 단락(כו, Beth)인 본문의 시작과 끝에도 '주의 말씀'이 있다. 이곳에서 한 청년은 고민하고 있다. 119편의 기자이기도 한 청년의 고민은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 그의 소원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시 119:9). 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다. 죄의 본성은 정결한 삶이 아니라 외식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청년은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바울에게도 있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이와 같이 동일한 고민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결한 삶을 위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신을 인격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금식, 공복기도 등 깨끗해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려고만 한다. 어떻게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 말씀이 청결하게 한다

고민의 대답은 단순하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시 119:9). 청년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청년은 고민과 동시에 '주의 말씀'이 대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모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입술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신 30:11,14). 말씀은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것은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 15:3)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에 눌려서 말씀을 멀리한다(요 16:1~3). 말씀에 기초한 고민이 없기에, 인기를 얻기 위한 고민만 있을 뿐이다. 회개하자. 주의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한다(히 1:3 ; 엡 5:26).

● 기자의 결정

청년은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에 결정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시 119:10). 기자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 결정은 실천되어야 한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신 6:5).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나의 것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셔야 한다(고전 8:6).

● 기자의 방어

주의 말씀에 따른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은 고백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우리의 심령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도가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롬 10:9~13).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이기 때문이다(히 4:12~13).

청년의 고민처럼 우리도 정결한 삶을 소원한다. 그러나 정결한 삶을 위한 우리의 결심은 금방 무사진다. 그 이유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참 신자가 아닌 외식적인 종교인이 될 뿐이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청결하게 한다. 말씀을 최우선하자.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주여, 성령말씀이 글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 영어교실 영어와 함께 누리는 복음의 기쁨

요즘 중언교회는 어느 때든지 영어로 제각제각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바로 '어린이 주중영어교실'과 '어린이 주일영어교실'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즐겁게 수업 중인 어른들도 있었다.

더워도 잊고 열심이 공부 중인 '어머니 영어교실'을 찾아 그들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머니 영어교실은?

2009년 11월, 어린이 주중영어교실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수업은 월요일반(A반, 3시)과 화요일반(B반, 1시)이 있고, 두 반 각각 10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예선(집사, 지도교사)**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 자녀들을 어린이 영어교실에 보내면서 숙제 지도도 잘 해주고 싶고, 아이들 교재인 어린이 영어성경을 같이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안정희(집사, 3교구)**

·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좋고, 요즘처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을 때 영어를 배워두면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외국인 성도들을 안내하거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영어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윤재영(집사, 1교구)**

· 어머니 영어교실의 두 반에 다 참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 공부하지만 A반은 영어성경 위주로, B반은 일상 영어와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선교를 할 때나 일상적인 회화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금선(집사, 13교구)**

어머니 영어교실만의 장점이 있다면?

· 어머니 영어교실은 'English Bible Story' 1년 분의 자료를 가지고 쉬운 영어로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Bible, 회화, 영어 찬양으로 쉽게 영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지요. **이슬희(4반 전성남)**
· 영어를 반복해서 읽다 보니 말문이 트이고 조금씩 영어를 읽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송정희(집사, 12교구)**

· 모르면 단어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찬송을 영어로 배우는 것이 참 좋아요. **김선희(집사, 11교구)**

짧은 시간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공간에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복음을 통한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영어교실은 수강료가 없다. 그래서 참석도 자율적이다. 하지만 강사진은 영문과 교수, 영어 강사 등 훌륭한 현장 영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연경 제단 없고 쉬운 '어머니 기초 영어교실'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어로 복음을 깊이 배우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영어교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취재 · 민성희 기자



어머니 영어교실 ☎ 010-8804-5092 장예선 집사

ONE DAY · ENGLISH CAMP



- 일시 - 2010. 7. 24. (토) 09:00~17:00 (9:00 중언교회 본당 앞에서 버스 출발)
- 장소 - 중언기도원
- 프로그램 - 예배, 코너별 영어 체험활동, 게임
- 주제 - Jesus is Real (영어로 생활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 자격 - 어린이 주중영어교실, 주일영어교실 참가자 전원(중언교회 소속 하지 않는 어린이도 친구 추천 시 가능)
- 참가비 - 7천원
- 문의 010-5892-8200 어린이 주중영어교실

동보 아저씨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지에 사는 동보 아저씨예요.

제가 몸집이 커서 별명이 동보랍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아내는 불록 뛰어나온 제 배를 가장 사랑해 주니까요.

저는 다리를 절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흔한 말로 오로 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뛰어들어가 작은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집안이 엉망이 되었고, 이것이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 언어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 자꾸도 귀에 남습니다.

한국 분들은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도 계속 웃었어요.

그 동안 내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온유한 표정과 미소는 참으로 오래반했었습니다.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다리를 다친 것은 예수님이 무관합니다.

잘 살아 보려 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니 예수님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생각해 보려해요.

당신들이 웃으면서 전했던 예수님! 다시 한 번 믿어 볼래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분의 산문을 편지글로 재구성 했습니다. ... 오봉규 기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5일(목) ~ 7월 23일(금)	14교구 3팀	이희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6일(월) ~ 7월 14일(수)	에바디부 1팀	윤원범
7월 6일(월) ~ 7월 14일(수)	5교구 4팀	이도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8일(월) ~ 7월 6일(화)	8교구 1팀	김광선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0교구 3팀	권영주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3교구 1팀	한홍연
6월 28일(월) ~ 7월 6일(화)	21교구 2팀	양승복
6월 28일(월) ~ 7월 7일(수)	17교구 1팀	이선홍
6월 29일(화) ~ 7월 7일(수)	24교구 2팀	박민호
6월 30일(수) ~ 7월 9일(금)	18교구 1팀	안연식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825	조수아	영아부	19		835	박소영	청년2부	9	김유경
826	권세원	영아부	20		836	강동국	초등1부	9	손기영
827	차민다	외선부	25		837	김유리	유치부	17	김진경
828	최혜란	양육반	14	이창순	838	김진표	초등1부	15	노현래
829	김은자	에바디부	25	배전희	839	김종환	양육반	17	전찬록
830	정승환	동선반	8	왕현숙	840	김지후	영아부	4	
831	이한나	적육반	1	박강희	841	함태은	영아부	17	
832	김지미	적육반	20	김명석	842	김유민	영아부	18	
833	허광록	적육반	24	황 호	843	조정우	영아부	18	
834	문원정	청년1부	1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

